

르포 // 설 앞둔 지역 농산물 도매시장 가보니

“가격만 묻고 물건은 통~ 안사가요”

과일값 전년비 사과 30%·배 두배 ↑

고물가에 대부분이 낱개 구입 선호

“그래도 대목이라고 사람들은 많아 나왔구만 맨 가격만 물어보고 물건은 통 안 산단 말이요.”

지역 도매시장에서 과일을 파는 한 상인의 푸념이다.

3일 설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광주 각화농산물도매시장에는 명절 대목의 분주함보다는 설렁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좀더 저렴하게 제수용품을 장만하려 나온 시민들의 발길은 이어졌지만 흥정소리만 들릴 뿐 실제 과일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과일가격이 예년보다 사과는 20~30%, 배는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이다.

각화농산물도매시장 33번 중도매인이 운영하는 청과코너 관계자는 “사과 1단(7~8개)에 지난해 2만 2000~2만 3000원이었는데 이를 살에는 2만 5000~3만원, 배 2단(15kg)에 4만~5만원대에서 7만~8만원대에 팔리고 있다”며 “사과하고 배만 샀는데 벌써 10만원이 넘었다”며 한숨을 내

쉬었다.

같은 날 광주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진열대를 가득 채운 과일 세트를 정리하는 상인들의 손놀림이 분주했다.

추운 날씨때문에 채소동과 수산물동은 손님들의 발길이 뜹했지만 과일동은 제수용 과일을 준비하기 위해 나온 30~50대 주부들이 눈에 띄게 많았다. 하지만 상인들의 표정에서 명절에 대한 기대감은 엿보긴 어려웠다.

과일 도매상 김영순씨는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긴 했지만 가격만 물어보기는 경우도 많았다”며 “작년 이맘때와 비교하면 1/3 수준 밖에 장사가 안된 것 같아”고 말했다.

하지만 상인들은 경기가 어려운 만큼 서민들이 백화점과 대형마트보다는 시장을 더 찾을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채소가게를 운영하는 최모씨는 “그래도 명절대목인데 명절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이 더 시장을 찾지 않겠나”며 “백화점이나 마트보다는 그 대도 시장이 싸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한우 부럽지 않아요

설 명절을 일주일 앞둔 3일 (주)광주신세계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직원이 명절 선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국내산 참굴비를 선보이고 있다. 백화점 관계자는 “고물가 여파에 굴비와 한우 등 선물세트도 10만원대가 가장 잘 팔리고 있다”고 말했다. 〈(주)광주신세계 제공〉

전남 농수산물 수출 3억 달러 ‘최대’

생산 1위·수출 4위 수산물 확대방안 시급

지난해 전남지역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2억 9500만 달러를 달성하는 등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수산물 전국 생산량은 1위지만 수출은 4위에 머물고 있어 수산물 기공기업 유치 등이 수출 확대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농산물 수출은 1억 3500만 달러, 수산물 수출은 1억 5900만 달러였다. 연도별 농·수

만 달러, 파프리카 1200만 달러, 김치 700만 달러 등이다.

수산물은 전복 4300만 달러, 톳 2300만 달러, 미역 2100만 달러, 김 2500만 달러 등이다.

반면, 지난해 국내 수산물은 모두 23억 5000만 달러 중 전남 지역 수출액은 6.8%에 머물고 있다. 수산물 가공업체와 수출업체가 부족한 탓이다.

이에 전남도는 도내 수출업체를 육성하고 내실화는 수산물 수출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수출 품목은 농산물을 유자차 1800

만 달러, 파프리카 1200만 달러, 김치 700만 달러 등이다.

수산물은 전복 4300만 달러, 톳 2300만 달러, 미역 2100만 달러, 김 2500만 달러 등이다.

반면, 지난해 국내 수산물은 모두 23억 5000만 달러 중 전남 지역 수출액은 6.8%에 머물고 있다. 수산물 가공업체와 수출업체가 부족한 탓이다.

이에 전남도는 도내 수출업체를 육성하고 내실화는 수산물 수출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수출 품목은 농산물을 유자차 1800

만 달러, 파프리카 1200만 달러, 김치 700만 달러 등이다.

수산물은 전복 4300만 달러, 톳 2300만 달러, 미역 2100만 달러, 김 2500만 달러 등이다.

반면, 지난해 국내 수산물은 모두 23억 5000만 달러 중 전남 지역 수출액은 6.8%에 머물고 있다. 수산물 가공업체와 수출업체가 부족한 탓이다.

이에 전남도는 도내 수출업체를 육성하고 내실화는 수산물 수출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수출 품목은 농산물을 유자차 1800

만 달러, 파프리카 1200만 달러, 김치 700만 달러 등이다.

수산물은 전복 4300만 달러, 톳 2300만 달러, 미역 2100만 달러, 김 2500만 달러 등이다.

반면, 지난해 국내 수산물은 모두 23억 5000만 달러 중 전남 지역 수출액은 6.8%에 머물고 있다. 수산물 가공업체와 수출업체가 부족한 탓이다.

이에 전남도는 도내 수출업체를 육성하고 내실화는 수산물 수출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수출 품목은 농산물을 유자차 1800

만 달러, 파프리카 1200만 달러, 김치 700만 달러 등이다.

수산물은 전복 4300만 달러, 톳 2300만 달러, 미역 2100만 달러, 김 2500만 달러 등이다.

반면, 지난해 국내 수산물은 모두 23억 5000만 달러 중 전남 지역 수출액은 6.8%에 머물고 있다. 수산물 가공업체와 수출업체가 부족한 탓이다.

이에 전남도는 도내 수출업체를 육성하고 내실화는 수산물 수출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수출 품목은 농산물을 유자차 1800

만 달러, 파프리카 1200만 달러, 김치 700만 달러 등이다.

수산물은 전복 4300만 달러, 톳 2300만 달러, 미역 2100만 달러, 김 2500만 달러 등이다.

반면, 지난해 국내 수산물은 모두 23억 5000만 달러 중 전남 지역 수출액은 6.8%에 머물고 있다. 수산물 가공업체와 수출업체가 부족한 탓이다.

이에 전남도는 도내 수출업체를 육성하고 내실화는 수산물 수출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수출 품목은 농산물을 유자차 1800

만 달러, 파프리카 1200만 달러, 김치 700만 달러 등이다.

수산물은 전복 4300만 달러, 톳 2300만 달러, 미역 2100만 달러, 김 2500만 달러 등이다.

반면, 지난해 국내 수산물은 모두 23억 5000만 달러 중 전남 지역 수출액은 6.8%에 머물고 있다. 수산물 가공업체와 수출업체가 부족한 탓이다.

이에 전남도는 도내 수출업체를 육성하고 내실화는 수산물 수출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수출 품목은 농산물을 유자차 1800

만 달러, 파프리카 1200만 달러, 김치 700만 달러 등이다.

수산물은 전복 4300만 달러, 톳 2300만 달러, 미역 2100만 달러, 김 2500만 달러 등이다.

반면, 지난해 국내 수산물은 모두 23억 5000만 달러 중 전남 지역 수출액은 6.8%에 머물고 있다. 수산물 가공업체와 수출업체가 부족한 탓이다.

이에 전남도는 도내 수출업체를 육성하고 내실화는 수산물 수출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수출 품목은 농산물을 유자차 1800

만 달러, 파프리카 1200만 달러, 김치 700만 달러 등이다.

수산물은 전복 4300만 달러, 톳 2300만 달러, 미역 2100만 달러, 김 2500만 달러 등이다.

반면, 지난해 국내 수산물은 모두 23억 5000만 달러 중 전남 지역 수출액은 6.8%에 머물고 있다. 수산물 가공업체와 수출업체가 부족한 탓이다.

이에 전남도는 도내 수출업체를 육성하고 내실화는 수산물 수출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수출 품목은 농산물을 유자차 1800

만 달러, 파프리카 1200만 달러, 김치 700만 달러 등이다.

수산물은 전복 4300만 달러, 톳 2300만 달러, 미역 2100만 달러, 김 2500만 달러 등이다.

반면, 지난해 국내 수산물은 모두 23억 5000만 달러 중 전남 지역 수출액은 6.8%에 머물고 있다. 수산물 가공업체와 수출업체가 부족한 탓이다.

이에 전남도는 도내 수출업체를 육성하고 내실화는 수산물 수출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수출 품목은 농산물을 유자차 1800

만 달러, 파프리카 1200만 달러, 김치 700만 달러 등이다.

수산물은 전복 4300만 달러, 톳 2300만 달러, 미역 2100만 달러, 김 2500만 달러 등이다.

반면, 지난해 국내 수산물은 모두 23억 5000만 달러 중 전남 지역 수출액은 6.8%에 머물고 있다. 수산물 가공업체와 수출업체가 부족한 탓이다.

이에 전남도는 도내 수출업체를 육성하고 내실화는 수산물 수출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수출 품목은 농산물을 유자차 1800

만 달러, 파프리카 1200만 달러, 김치 700만 달러 등이다.

수산물은 전복 4300만 달러, 톳 2300만 달러, 미역 2100만 달러, 김 2500만 달러 등이다.

반면, 지난해 국내 수산물은 모두 23억 5000만 달러 중 전남 지역 수출액은 6.8%에 머물고 있다. 수산물 가공업체와 수출업체가 부족한 탓이다.

이에 전남도는 도내 수출업체를 육성하고 내실화는 수산물 수출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수출 품목은 농산물을 유자차 1800

만 달러, 파프리카 1200만 달러, 김치 700만 달러 등이다.

수산물은 전복 4300만 달러, 톳 2300만 달러, 미역 2100만 달러, 김 2500만 달러 등이다.

반면, 지난해 국내 수산물은 모두 23억 5000만 달러 중 전남 지역 수출액은 6.8%에 머물고 있다. 수산물 가공업체와 수출업체가 부족한 탓이다.

이에 전남도는 도내 수출업체를 육성하고 내실화는 수산물 수출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수출 품목은 농산물을 유자차 1800

만 달러, 파프리카 1200만 달러, 김치 700만 달러 등이다.

수산물은 전복 4300만 달러, 톳 2300만 달러, 미역 2100만 달러, 김 2500만 달러 등이다.

반면, 지난해 국내 수산물은 모두 23억 5000만 달러 중 전남 지역 수출액은 6.8%에 머물고 있다. 수산물 가공업체와 수출업체가 부족한 탓이다.

이에 전남도는 도내 수출업체를 육성하고 내실화는 수산물 수출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수출 품목은 농산물을 유자차 1800

만 달러, 파프리카 1200만 달러, 김치 700만 달러 등이다.

수산물은 전복 4300만 달러, 톳 2300만 달러, 미역 2100만 달러, 김 2500만 달러 등이다.

반면, 지난해 국내 수산물은 모두 23억 5000만 달러 중 전남 지역 수출액은 6.8%에 머물고 있다. 수산물 가공업체와 수출업체가 부족한 탓이다.

이에 전남도는 도내 수출업체를 육성하고 내실화는 수산물 수출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수출 품목은 농산물을 유자차 1800

만 달러, 파프리카 1200만 달러, 김치 700만 달러 등이다.

수산물은 전복 4300만 달러, 톳 2300만 달러, 미역 2100만 달러, 김 2500만 달러 등이다.

반면, 지난해 국내 수산물은 모두 23억 5000만 달러 중 전남 지역 수출액은 6.8%에 머물고 있다. 수산물 가공업체와 수출업체가 부족한 탓